

# 대행스님의 한마음과 원효의 일심(一心) 사상 비교 고찰

김 순 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I. 들어가며
- II. 일심사상의 형성과 전개
- III. 대행의 일심사상
- IV. 두 사상의 동이점(同異点)
- V. 나가며

<논문요약>

본고는 일심사상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고찰로써 『기신론』 과 원효의 일심을 밝히고 대행의 한마음 사상과 동이점(同異點)을 비교하면서 일심의 원리와 실천성 및 현대적인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심(eka-citta : 한마음) 사상’의 교학과 수행 체계는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를 거쳐 한국 불교에 이르러서 원효에 의해 실천적으로 흡수됐다. 신라시대의 원효는 번뇌와 보리가 하나로 만나고 모든 분별과 대립을 초월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심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일심은 본체와 현상(相), 체(體)와 용(用),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이 분리된 것이 아닌 일체성을 지니며, 시공을 초월한 무한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다. 이는 대행(大行, 1927~2012)의 한마음 사상에서 구체화된다.

‘한’은 광대무변하여 일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뜻하며, ‘한마음’이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마음, 삼천대천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주인공에 ‘놓고, 맡기고, 지켜봄’과 오공(五共)으로 실천된다.

【주제어】 일심사상(一心思想), 한마음 관법(觀法), 원효, 대행스님, 주인공.

## I. 들어가며

우리는 전도된 가치와 정신의 황폐화 속에서 내재한 분노와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갈등과 혼란을 마주하곤 한다. 본 논자는 30여년 넘게 병상포교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공존을 지켜보며 갖가지 원효와 대행이 직시한 기세간의 청정과 중생세간의 청정이 다르지 않음을 실감했다. 삼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 근본 청정이 일심(한마음)이고, 한마음의 실천원리인 주인공 관법이 치유와 회복의 씨앗임을 경험했다. 일심은 인류의 본성을 밝힌다. 중생의 본성을 밝혀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일심 한마음 생활선 수행도량을 일구며, 인간의 본성으로서 불성·진여·여래장·공성이라는 원리를 탐구했다. 주인공 관법은 일심의 실천으로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자유인의 길이었다.

인간은 윤회와 고(苦)의 수레바퀴에 올라탄 존재이지만 불성을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의 그릇이다. 인간의 몸은 부처님 법당(성전)과 다름 아니며 수행으로 거듭날 법기(法器)이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다루며, 마음을 잘 다루면 몸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관계와 연기(緣起)적 존재인 인간은 시간의 파고에 몸은 쇠잔해지고 정신과 경제적 여건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대행의 한마음 주인공 관법은 고(苦)의 한가운데에서 건강·시간·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도 일상에서 가능하며, 자연스런 치유의 힘을 지녀 문제해결의 열쇠를 제공한다. 주인공 관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성 회복에 유의미한 효과를 지니며, 사상적인 맥락에서 일심사상의 현대적 실천 가능성을 함의한다.

지금까지 한마음 일심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2017년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이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한마음 사상의 사상적 연원과 응용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 이전에 이균희(李均熙: 혜선)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한마음사상과 선수행체계 연구(2005)」에서 선수행과 관련한 한마음

일심사상의 학문적 통섭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한자경을 비롯한 몇몇이 한마음사상의 특징에 대해 단편적으로 고찰한 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행의 한마음 일심사상과 원효의 일심사상을 비교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를 토대로 원효와 대행의 일심사상을 비교 고찰하여 한마음 일심사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음 일심사상의 실천적 관건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봄’이다. 느낌을 통찰하여 알아차림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의 주인공을 관(觀)하는 방법이다. 간절하고 진심어린 깊은 마음에서 솟아난 신뢰와 확신의 정성스런 마음과 지극한 뜻으로 한 생각을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인공 관법은 인지·정서·행동 및 궁극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마음 관법(觀法)도 일심사상에서 기원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심사상은 우주의 근본 원리로서 진여·불성·공성 등을 의미한다. 『대승기신론』(이하 기신론)에서는 일심을 ‘진여본각’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현실과 이상을 어떻게 포용하고 통섭하며 인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상은 신라시대에 활동한 원효의 일심 회통사상을 거쳐, 현대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대행(大行, 1927~2012)의 한마음사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이란 동일한 공간 속에서 시간을 달리해 전개된 일심사상은 회통과 포용 속에서 중생을 포용하고자 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원효의 일심사상과 대행스님의 한마음 사상을 비교 분석하여 두 사상의 동이점을 밝히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일심사상의 형성과 전개

‘일심’의 개념은 유가행파의 중자식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언제 어디서나 상속하는 무부무기성(無覆無記性)<sup>1)</sup>의 혼습되는 마음이다.<sup>2)</sup> 『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은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을 통섭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의 일심은 진여·불성·공성의 의미로 읽혀진다. 일심은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으로서 한마음인 것이다. 『기신론』과 원효의 일심을 밝히고 한마음 일심사상과 비교하면서 일심의 원리와 실천성 및 현대적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심사상

‘일심(eka-citta:한마음)사상’의 교학과 수행체계는 인도불교와 중국불교를 거쳐 한국불교에 이르러서 원효에 의해 실천적으로 흡수된다. 신라 원효는 번뇌와 보리가 하나로 만나고 모든 분별과 대립을 초월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심의 깨달음을 강조한다. 마명은 『기신론』에서 일심에 대해 진여와 속을 별개의 체(體)로 보려는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일심(一心)과 진여(眞如)는 인간 안의 본체이면서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고 보았다. 진여가 일심이며, 본체와 현상을 아우르고 염정(染淨)을 통섭한다. 모든 존재는 진여인 일심의 현현인 것이다.

원효는 마명의 『기신론』을 계승해 중생의 본성을 밝혔다. 중생심이 진여와 평등하지만 일심에 대한 불각(不覺)으로 인해 고통 받고,

- 
- 1) ‘무부무기(無覆無記)는 선과 불선이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이숙식(제8식 아뢰야식)은 오직 무부무기(無覆無記)일 뿐이다. ‘무부무기’는 이 안에 雜染이 없음을 무부(無覆)라고 이름 한다. 즉 잡염이 없는 무기를 무부무기라고 부른다. 색계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불선을 무기로 삼는 유부무기(제7 말라식 有覆無記)와는 다르다.’ 한글대장경 <http://abc.dongguk.edu/ebti>, 『섭대승론석』, 90쪽.
- 2) 권오민, 「상좌(上座) 슈리라타의 "일심(一心)"과 알라야식(識)」, 『한국불교학』 70, 한국불교학회, 2014, 193~223쪽.

망념이 일어나게 된다. 수행을 통해 미혹에서 벗어나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범부가 부처로 탈바꿈할 수 있다. 한마음의 일심은 우주 전체 생명의 근본 마음이다.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근본에 가설되어 있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하나(一心)로 통해 있다.

종교적 전통이란 돌이켜보면 인간의 경험에서 시작되어 이어졌다. 불교적 실천은 고(苦)의 영역을 수행으로 승화한 해방의 여정이었다. 일심사상은 논자가 30여년 실천한 주인공 관법의 뼈대이며, 실천이 이론을 증명하듯 심신의 자유를 향한 수승한 수행의 길에서 발견하는 진여(眞如, tathātā)<sup>3)</sup> 본성은 측정 불가능한 무한한 가능성의 용광로였다. 일상의 행위를 통해 우리들의 업은 찰나 찰나 저장된다. 저장식이라 하는 아뢰야식은 무부무기(無覆無記)라서 깨끗하고 더러울 게 없고(不垢不淨), 선도 악도 아닌 ‘일심=용광로’라서, 용광로에 다 던져 넣어 녹여서 재련하면 무쇠도 잡쇠도 다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재탄생한다. 인간 내면의 깊은 의식인 일심과 조우하는 일체화의 통합과정은 숙세의 업습(業習)이 정화되는 것이다.

깊은 심층의식이 마주하는 내적 성숙도에 따라 한마음 일심인 주인공 본성자리는 거울(圓)을 마주하듯 자신을 환하게 비추고 밝혀준다.

일심은 우주본체인 진여(眞如, 一心), ‘참된 나’를 말한다. 본체와 현상(相), 체(體)와 용(用), 진여와 생멸이 분리된 것이 아닌 일체성을 지닌다. 시공을 초월한 무한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며 지혜광명이다. 이는 대행(大行, 1927-2012)의 한마음 사상에서 ‘한’이 광대무변함, 일체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뜻하며, ‘한마음’이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시작도 끝도 없는 근본 마음, 삼천

3) 진여(眞如)는 산스크리트어 tathātā ‘있는 그대로의 것’을 뜻한다. 경계가 없어질 때 진여로 인식된다. 원효는 “버릴 것도 보낼 것도 없는 것”을 진여라 하였다.(원효, 『대승기신론소』(T44), 言眞如者無遣曰眞無立曰如). 정혜정, 「『대승기신론』에 나타난 마음이해와 ‘정법熏습(淨法熏習)’의 내감(內感)교육」, 『한국교육사학』 33, 2011, 205쪽.

대천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sup>4)</sup>

### 1) 『기신론』의 일심사상

『기신론』은 대승불교의 기본서로 존중되며 심층적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제시했다.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라는 존재양식과 인식체계를 구축하고 지관(止觀)의 실천을 싣어 놓았다. 『기신론』은 마명(馬鳴, Aśvaghōṣa: 100-160)가 2C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티베트어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 양나라 진제(眞諦, 499-569)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의 한역본만 전한다.

『기신론』의 대승은 소승과 대척점에 선 대승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킨다. 탐·진·치 삼독의 번뇌 한 가운데 있는 마음은 쉽사리 사람 마음의 본성인 진여를 확인하지 못한다. 『기신론』은 인간 본성의 낙천성·긍정적·적극적·능동적·실천적·청정성을 ‘불성’으로 표현하며,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과 덕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마음의 자성청정성을 깨닫는 것이 기신(起信)인 것이다. 『기신론』의 찬술 이유와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켜 부처의 종자(佛種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 ……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인연분(因緣分), 둘째는 입의분(立義分), 셋째는 해석분(解釋分), 넷째는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다섯째는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이다.”<sup>5)</sup>

- 
- 4) 김원명, 「대행선사(大行禪師)의 한마음 사상을 중심으로 본 업과 삶」,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2013, 101~119쪽.  
5) 馬鳴菩薩造·眞諦譯, 『大乘起信論』(T32, 575b),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有五分。云何爲五。一者因緣分。二者立義分。三者解釋分。四者修行信心分。五者勸修"

『기신론』은 일심, 이문, 삼대를 논한다. 일심은 우주본체를 뜻하고, 이문은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다. 삼대는 체(體)·상(相)·용(用)이며 체는 일심·진여·여래장이며, 상은 진여로부터 연기된 현상, 용은 지혜의 작용이다. 일심은 부증불감(空)하는 체와 여래장의 무량공덕을 갖추는 상, 선과 인과로 작용하는 용의 총합체로서 진여와 생멸은 동시적이다. 일심은 본질이 진여이지만 생과 사를 아우른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善惡)과 생멸(生滅)은 원래 둘이 아니며 일심의 작용이라 말한다. 작용이란 점에서 일심은 전체성을 나타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그렇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의 과정에서 불변하는 청정성(空性, 佛性)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기신론』 해석분은 일심의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한다.

"현시정의(顯示正義)라는 것은 일심법(一心法)에 의지하여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심진여(心眞如) 문(門)이고, 둘째는 심생멸(心生滅) 문(門)이라. 이 두 문은 각각 일체(一切)의 법을 총섭(總攝)하니 이 두 가지 문이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니라."<sup>6)</sup>

무아(無我)의 관점에서 불교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와 인식의 공(空)을 밝히는 존재론적 접근은 심진여문(心眞如門)이며, 여기에서 진여는 우주만물의 실체로서 진실한 존재방식이다. 진여는 일심이자 중생심이고 본체와 현상을 아우른다.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하고, 개별적인 마음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우주와 동체이다.

“심진여는 일법계(一法界)의 대총상 범문의 체이며, 심성이 생기지도 않고,

6) 馬鳴菩薩造 · 眞諦譯, 『大乘起信論』 (T32, 576a), "顯示正義者。依一心法。有二種門。云何爲二。一者心眞如門。二者心生滅門。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此義云何。以是二門不相離故。"

멸하지도 는다.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망념을 의지하여 차별이 있어서, 심념(心念;妄念)만 여의면 곧 일체경계의 상이 없으리라. 일체법이 본래부터 언설의 상을 여의었다. 언표(이름의 相)을 여의었으며 심연의 상을 여의어서 필경에는 평등하여 변하고 달라짐이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다. 오직 이 한마음인 까닭에 이름을 진여라고 한다. 일체의 언설이 거짓 이름이고, 실다움이 없다. 다만 망념(妄念)을 따랐을지언정 가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하나의 상이 없는 것이니, 이른바 언설의 궁극은 말로 인해서 말을 보내는 것이다. 이 진여의 체는 가히 보낼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의 법이 다 참답기 때문이며, 또한 가히 내세울 것이 없다. 일체의 법이 다 동일하게 여여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라. 일체법은 가히 말할 수도 없고 가히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진여라고 한다."<sup>7)</sup>

심진여는 무루법이며 생각과 의지를 철수하면 일체경계의 상이 사라진다. 즉 언표를 떠난 실상이다. 마음의 선악과 생멸 등이 모두 사라진 평등한 실재(空性)가 진여이다. 심진여문은 진제와 속제에서 진제에 속한다.<sup>8)</sup> 심생멸문(心生滅門)은 인식론적 접근방식이다.

“심생멸이란 여래장을 의지하므로 생멸하는 마음이다.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닌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아니함이니 이름 하여 아뢰야식(阿梨耶識)이라고 하니라. 아뢰야식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일체법을 포섭하며 일체법을 낸다. 첫째는 각의(覺義)이고 둘째는 불각의(不覺의 뜻)이다.”<sup>9)</sup>

7) 상동, (T32,576a), "心眞如者。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所謂心性不生不滅。一切諸法唯依妄念而有差別。若離妄念則無一切境界之相。是故一切法從本已來。離言說相離名字相離心緣相。畢竟平等無有變異不可破壞。唯是一心故名眞如。以一切言說假名無實。但隨妄念不可得故。言眞如者。亦無有相。謂言說之極因言遣言。此眞如體無有可遣。以一切法悉皆眞故。亦無可立。以一切法皆同如故。當知一切法不可說不可念故。名爲眞如"

8) 이평래, 『대승기신론 강설』, 민족사, 2014, 114쪽.

9) 馬鳴菩薩造·眞諦譯, 『大乘起信論』(T32,576b), “心生滅者：依如來藏故，有生滅心；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名爲阿梨耶識。此識有二種義，能攝一切法，生一切法。云何爲二？一者、覺義，二者、不覺義”

마음은 찰나 생, 찰라 멸하는 생성과 소멸 및 변화의 실상임을 사유하는 방식이다. 마음의 상이며 단순한 생성 소멸이 아닌 마음의 혼수에 의해 발생한다. 각의(覺義)는 본각을 의미하며 마음 자체의 생각과 거친 의지를 철수한 시원의 상태인 시각(始覺)이다. 만약 심원(心源)을 깨닫는다. 『기신론』의 일심은 선악과 생멸이 하나임을 깨달아 궁극적인 실존인 진여에 도달하는 중도(空性)의 실천적 깨달음의 목표 지향성이 내포돼 있다.

## 2) 원효의 일심사상

원효(元曉, 617~686)는 『기신론』의 이론적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인식하여 다양한 학설을 종합할 수 있는 단초를 『기신론』의 사상에서 체계화했다. 『기신론소』와 『별기』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술을 남겨 불교사상을 아우른다. 『아미타경소』, 『열반중요』 등 다수의 논서는 일심을 밝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일관했다.<sup>10)</sup>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일심의 근원은 진여이며 마음의 본성임을 밝혔다.

“중생심의 본성은 모양도 없고 성품도 없으니,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기 때문에 모양이라 하여도 통하지 않은 데가 없으니 어찌 동쪽이다 서쪽이다 할 곳이 있겠는가. 바다와 같기 때문에 성품이라 하여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없으니 어찌 움직이고 고요할 때가 없겠는가.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은 오염된 행위로 인하여 오탁을 따라 오랫동안 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정한 연에 힘입어서 사류(四流: 네 가지 번뇌의 흐름, 欲流, 有流, 無明流, 見流)를 끊고 영원히 고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고요함도 모두 커다란 꿈속의 일과 같아서, 꿈에서 깨어나 바라보면 흐름도 없고 고요함도 없을 것이다. 예토와 정도는 본래 일심이요, 생사와 열반도 궁극에는 둘이 아니다.”<sup>11)</sup>

10) 이수미, 「동아시아의 대승기신론 해석의 전개」, 『불교학연구』, 2016, 49~50쪽.

11) 元曉 『佛說阿彌陀經疏』(T37,348a) “夫衆生心之爲心也。離相離性如海如空。如空之故無相不融。何有東西之處。如海之故無性是守。豈無動靜之時。

원효는 이분법적 개념을 초월하고자 했다. 『열반중요』의 회통문에서 일심은 유류와 무류, 둘째 상(常)과 무상(無常)을 초월하며 원인과 결과가 없는(非因非果), 일심의 본성은 오직 부처님만이 체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마음의 근원은 유무를 떠나 홀로 청정(獨淨)한 것이며, 삼공의 바다(三空之海)는 진속을 융합하여 깊고도 고요하다. 깊고도 고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융합하여 하나가 아니며, 홀로 청정하다는 것은 변견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 중간도 아니면서 변견을 여의었기 때문에 불유(不有)의 법이 바로 무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불무(不無)의 상(相)이 바로 유(有)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하나가 아니면서도 두 가지를 융합했으므로 비진(非眞)의 일은 애초에 속제가 된 적이 없으며, 비속(非俗)의 이치는 애초에 진제가 된 적이 없다. 두 가지를 융합했으나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진속의 성품이 수립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염정의 모습이 구비되지 않음이 없다. 변견을 떠났어도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의 법은 만들 어지지 않았던 적이 없다. 시비의 의미가 두루 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논파함이 없되 논파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요, 세움이 없으면서도 세우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크게 그러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일체를 포용하며, 단상과 시비의 변견을 초월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삼공(三空)의 정신에 기반한다. 『기신론』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일심으로 본다. 일심에 의하면 만법은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원효는 『기신론』에서 말하는 일심이문의

爾乃或因染業隨五濁而長流。或承淨緣。絕四流而永寂。若斯動靜皆是大夢。以覺望之無流無寂。穢土淨國本來一心。生死涅槃終無二際”

12) 元曉, 『금강삼매경론』 (T34, 961a). “夫一心之源離有無而獨淨。三空之海融真俗而湛然。湛然融二而不一。獨淨離邊而非中。非中而離邊。故不有之法不即住無。不無之相不即住有。不一而融二。故非真之事未始為俗。非俗之理未始為真也。融二而不一。故真俗之性無所不立。染淨之相莫不備焉。離邊而非中。故有無之法無所不作。是非之義莫不周焉。爾乃無破而無不破。無立而無不立。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然矣。”

입장에서 중생을 심생멸문에 속하는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심지여문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귀명(歸命)이란 근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중생의 육근은 일심에서 일어나지만 자신의 근원을 등지고, 육진의 세계로 내달린다. 이제 전 생명을 기울여 육정을 모두 섭수하고, 그 근본인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귀명이라 하니,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sup>13)</sup>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귀명이라 하는데, 그 귀명이란 단어는 인용문과 같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말한다.

“적멸(寂滅)이란 일심을 말한다.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룸 한다. 이것을 진여문(眞如門)에서 말하자면 바로 저 경전의 적멸을 해석하여 일심이라 이룸했다. 심생멸문(心生滅門)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경전 속의 일심을 풀이한 것이니 여래장이라 이룸 한다.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는 멸함이 없이 본래가 적정(寂靜)하므로 오직 일심뿐이다. 이러한 것을 심지여문(心眞如門)이라 이룸 한다. 그러므로 적멸을 일심이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일심의 본체에는 본각(本覺)이 있지만 무명을 따라 생멸의 모습을 만든다. 그러므로 이 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가려져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래장이라 이룸 한다. 그러므로 일심을 일러 여래장이라 이룸 한다. 이것은 일심의 생멸문을 나타내는 것이다.”<sup>14)</sup>

일심이문에 의거한 것이지만 일심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포

13) 元曉, 『대승기신론소』 (T44,203b), “又復歸命者還源義。所以者。眾生六根。從一心起。而背自原。馳散六塵。今舉命總攝六情。還歸其本一心之原。故曰歸命。所歸一心。”

14) 元曉, 『대승기신론소』 (T44,206c), “寂滅者名為一心。一心者名如來藏。此言心眞如門者。即釋彼經寂滅者名為一心也。心生滅門者。是釋經中一心者名如來藏也。所以然者。以一切法無滅。本來寂靜。唯是一心。如是名為心眞如門。故言寂滅者名為一心。又此一心體有本覺。而隨無明動作生滅。故於此門如來之性隱而不顯。名如來藏。如經言如來藏者是善不善因。能遍興造一切趣生。譬如伎兒變現諸趣。如是等義在生滅門。故言一心者名如來藏。是顯一心之生滅門”

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심진여문을 의미하는 적멸, 즉 진여 그 자체란 개념과, 심생멸문을 의미하는 여래장이란 개념이 그것이다. 여기서 여래장이란 중생을 의미한다. 중생은 일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본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여래장이란 점에서 중생은 언제나 가능성 존재로 존립하며, 현존하는 자신의 실존을 순기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다.

원효는 『기신론』이 문자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민중들을 배려해 ‘다라니처럼 문장의 분량이 적으면서도 뜻이 풍부한’ 『기신론』에 의지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연구했다. 『기신론』을 설하게 된 큰 뜻이 ‘하화중생(下化衆生) 상홍불도(上弘佛道)’에 있으며,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의혹(疑惑)과 사집(邪執) 때문이며, 법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고자 일심을 설했다는 것이다.

원효는 마명의 『기신론』의 기획과 구도를 계승한다. 중생의 본성은 부처나 여래의 본성과 같이 평등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인 일심(一心)에 대한 불각(不覺)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우주적 마음이며 모든 것의 근본인 일심 수행을 통해 미혹에서 벗어나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범부가 부처로 탈바꿈하는 길을 제시했다. 개인은 일상적이 충족의 상태로 일컫는 행복과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다.<sup>15)</sup> 망념에 헤매는 상태를 파도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대승법에는 오직 일심만이 있고,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이 없지만 단지 무명이 일심을 미혹시켜서 파도(번뇌)를 일으켜 중생이 육도에 유전(流轉)한다고 강조한다.

“대승의 법은 오직 일심뿐임을 밝힌다. 일심 이외에 다른 법은 없다. 다만 무명이 있어서 자신의 일심을 미혹케 하여, 일체의 파랑(물결)을 일으켜 육도를 유전(流轉)하게 한다. 비록 육도의 파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일심의 바다를

15) 고영섭, 「분황 원효의 평화 인식—一心과 和靜과 無碍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62, 한국불교학회, 2012, 44쪽.

벗어나지 않는다. 진실로 일심에 의지하여 욱도를 움직이게 하므로 홍제(弘濟)의 서원을 펼칠 수 있다. 욱도가 일심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동체대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의심을 버려야 큰마음을 펼칠 수 있다.”<sup>16)</sup>

무명 때문에 욱도를 유전하더라도 그것이 일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진여훈습에 의해, 즉 일심 때문에 일심의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한다. 일심으로 향하는 회귀성을 사홍서원과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표현한다. 이런 점은 원효의 일심이 단지 궁극적인 본성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무명에 닫혀 있는 중생들이 자유와 평화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종교적인 실천과 목표가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실천과 목표는 바로 일심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며, 그것은 중생이 여래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심은 만물의 근원이며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을 포섭한다. 일체법이란 곧 중생심이다.<sup>17)</sup> 일심의 표현이 중생심이지만 그것은 불각의 존재이며, 미완의 존재이다. 다만 진여심에 이끌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생은 부단한 수행을 필요로 한다.

수행을 통해 장애를 제거하고 일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상태가 시각(始覺)이다. 이를 위해 원효는 지관문(止觀門)을 가장 중시했다. 지와 관이 정과 혜에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와 관이 각각 정혜에 모두 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행과 관행이 각각 진여문과 생멸문에 배당한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지관도 함께 닦아서 수행해야만 한다.<sup>18)</sup>

16) 元曉, 『대승기신론소』 (T44, 204b), “明大乘法唯有一心。一心之外更無別法。但有無明迷自一心。起諸波浪流轉六道。雖起六道之浪。不出一心之海。良由一心動作六道。故得發弘濟之願。六道不出一心。故能起同體大悲。如是遣疑。得發大心也。”

17) 南東信, 「元曉의 起信論觀과 一心思想」, 『佛敎思想史學』 22, 2003, 67~68쪽.

18) 南東信, 「元曉의 起信論觀과 一心思想」, 『佛敎思想史學』 22, 2003, 71쪽.

따라서 ‘모든 분별과 대립을 초극한 세계’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세계를 안다면 번뇌가 사라진 ‘한마음(一心)이 한결같이 그러함(一如)의 침상 위에 누워 있음’<sup>19)</sup>처럼 편안하고 얽혀있음이 사라진 것이다. 번뇌가 보리이고 세속이 바로 열반이며, 진제와 속제의 구분과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회통의 일심사상이 원효의 사상적 기틀이라 할 수 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와 『열반경경요』에서 일심과 본각을 여래장과 불성에 상응시켰다. 원효는 일체법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일심일 뿐이니 심진여문 즉 적멸이란 일심을 뜻한다고 하였다. 일심의체가 본각이지만 무명에 따라서 움직여 생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이 숨어 있어 나타지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歸一心源)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 되게 하는(饒益衆生) 논법’을 화쟁 회통이라고 하여 일심의 근원과 중생의 이익을 등치했다.<sup>20)</sup>

### Ⅲ. 대행의 일심사상

대행(大行, 1927~2012)의 한마음 일심사상은 일심이 진여·불성·주인공·‘참 나’의 의미로 인식된다. 대행은 그것을 한마음이라 달리 표현하거나 근원적인 하나며 일체 모든 현상세계를 포괄하는 본원적인 포괄자로 본다. 대행선사의 불교적인 깨달음의 정통성이 세간의 논단에서 논의되는 현상은 그만큼 한 인간의 깨달음의 내용이 실천되는 모습이 방대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증표일 수 있다.

대행은 ‘한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개인적 소아에 사로잡힌 미망을 벗어나 공성(空性)에 입각한 무한대아(無限大我)를 통찰하고

19) 김도공, 「원효 일심사상의 체계화 과정 고찰」, 『원불교학』,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9, 728쪽.

20) 고영섭, 「분황 원효의 평화 인식—一心과 和靜과 無碍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62, 한국불교학회, 2012, 49쪽.

자 하는 정신의 확보와 실천을 강조한다. 한마음으로 표현되는 대행의 일심사상이 관념에 갇히는 것을 고려한 사유의 결과라 본다. 따라서 한마음의 현실적 구현과 정신적 확장을 증시한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한마음이 드러나도록 하고자 하는 종교적 실천인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供用)·공식(共食)이라는 오공의식이다. 일심은 ‘한마음’이며 오공을 실천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해 불교의 대중화·생활화를 꾀했다. 여기서 공은 공(空)을 의미한다. 한마음의 원리적 측면에서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의 토대인 일심 즉 불성의 입장은 함께 한다는 공이 무집착 공의 정신과 근원적 동질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한마음요전』과 이후 발행된 법어집인 『허공을 걷는 길』 등에는 대행의 한마음 사상이 다양하게 설과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한마음 일심사상의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심은 주인공

일심은 공성·진여·여래장(如來藏)·불성·한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일심은 내재적 속성에서 원효의 여래장, 대행의 주인공과 상통한다. 일심 한마음은 우주전체이다. 이는 대행선의 종지를 형성하고 방편으로서 실천적 존재양식인 주인공이다. 일심=한마음=진여=공성=불성은 하나의 진실이다. 한마음의 본성을 인식론적 견지에서 사실에 대한 명료한 자각을 강조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있다. ‘주인공은 누구인가?’이다. 이는 주인공이면서 스스로 주인공인줄 모르는 ‘나는 누구인가?’ 등 철학적인 사유가 담긴 존재론적인 궁극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

21) 차차석, 『대행선이란 무엇인가?—제1회 학술대회』, 대행선연구원, 2017, 190쪽. 한마음의 실천적 변용으로서 五共의 共은 무집착 空의 정신이 전체 되어야 한다.

주인공은 무한한 존재양식으로서 불성이고 공성·자성(진여)이며, ‘참 자유인(大覺者)’이다. 우주를 일으키는 한마음은 각자 육신의 한마음과 틀이 아니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각 생명체에 작용하는 우주창조의 힘, 생명의 힘은 심층의식의 한마음에 연결돼 있다.<sup>22)</sup>

“우주 전체가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살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내 근본에 가설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하나로 통해 있다는 말이다. 버도 없고 붓장도 없으니 일체 제불의 마음이 곧 내 한마음이고, 일체 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인 것이다.”<sup>23)</sup>

한마음은 개별 각자의 친구인 나를 살아 있게 하는 근본 에너지로서 생명의 마음이다. ‘이 친구 저 친구 들어오는 전기’가 다 똑 같듯이 만물은 다 한마음에서 하나로 가설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표면의식에서 드러난 양상만을 보지 않고 심층마음의 눈으로 일체 생명의 연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발전소에서 내 집 전등에 이르도록 전선을 가설해 놓고서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오듯이 나의 마음은 한마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나의 근본이 곧 만법의 근본이라, 이름하여 주인공이다.”<sup>24)</sup>

불성, 진여, ‘참 자유인(깨달은 자)’인 주인공을 자각하는 깨달음이란 연기와 공(空)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소지장을 끊고, 사무량심이 깃든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써 자비와 지혜의 양 날개로 번뇌장을 끊고 대보리를 이루는 일이다. 따라서 주인공에 대한 깨달음은 단순한 표면의식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심층의식의 근원을 찾는 수행과 경험, 교학과 선정의 힘이 필요하다. 한마음인 주인공은 지

22) 한자경, 『한마음이란 무엇인가?—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선학』, 한국선학회, 2016, 225~226쪽.

23)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6, 349~350쪽.

24)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6, 351쪽.

수화풍 사대를 모아 육신을 만든 신통 묘용이며, 육신은 주인공의 ‘시자’, ‘아들’이므로 주인공은 근본이 된다. 주인공 생명의 힘은 하나에 뿌리를 둔다.

## 2. 한마음은 무한의식

한마음은 내려놓음이며, 그러기에 ‘무한의식의 세계’를 성취할 수 있는 원천이다.<sup>25)</sup> 『메추라기에 대한 비유의 경』에서 무한은 ‘뛰어 넘는다’는 것<sup>26)</sup>이며, 궁극적으로는 공성(空性)과 상통하는 내려놓음이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를 갖추고 숙고를 갖추어, 멀리 여윌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하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을 버려라’고 나는 말한다. ‘그것을 뛰어넘어라’고 라고 나는 말한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를 뛰어넘고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두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희열이 사라진 뒤, 새김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알아차리고 평정하게 지내고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평정하고 새김 있는 행복한 삶이라 부르는 세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을 버리고 만족과 불만족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뛰어넘고 즐거움도 뛰어넘어 평정하고 새김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한다.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감각적 접촉의 지각이 사라진 뒤 다양성의 지각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알아채며 ‘무한공간의 세계’를 성취한다. 무한공간의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의식이 무한하다고 알아채며 무한의식의 세계를 성취한다. 무한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아채며 아무 것도 없는 세계를 성취한다. 아무 것도 없는 세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성취한다.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한다. ‘버려라’라고 말한다.”<sup>26)</sup>

25) 전채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748쪽.

26) 전채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747~749쪽.

한마음은 무한에 근거해 무한한 가능성을 수용한다. 수와 양,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며 인식대상은 기세간이다. 한마음은 개체의 나고 죽는 현상계의 한계를 초월해 우주를 감싸는 대원리로써 내적 초월성을 지닌 불성의 다른 이름이다.<sup>27)</sup> 불성은 무시이래로 있어 왔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며 우주에 편만하다. 한마음은 불변성을 이유로 실체를 인정하는 범아일여의 인도적 사고의 논리와는 다르다.<sup>28)</sup>

브라만교의 범아일여(Brahman-ātman-aikya)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와 합일하는 종교체험이다. 인간이 실체와 하나가 되는 이분의 세계를 초월하여 궁극의 변화를 갖게 된다.<sup>29)</sup>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특수한 종교체험이 사회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현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붓다 샤카무니는 깨달음을 통해 자아(ātman)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無我, anatta)의 가르침을 전한다.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의 불평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변혁과 실천을 요구한다. 나아가 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그릇된 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sup>30)</sup>

무한의식의 확인과 초월에 대해 대행은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를 뛰어넘어 지각과 느낌의 소멸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버리는 것’이라 말한다. 그것이 바로

27) 한자경, 「한마음이란 무엇인가?—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선학』, 한국선학회, 2016, 213쪽.  
 28) 범아일여(梵我一如) : 브라만(Brahman, 梵)은 우주의 근원이며, 아뜨만(ātman, 我)은 개개인에게 내제된 통일의 원리로서 브라만과 아뜨만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아뜨만이 개체적인 자아라면 브라만은 우주적 자아라 한다. 아뜨만을 우주적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브라만이 된다.  
 29) 이호근, 「범아일여사상과 연기설」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2002, 100쪽.  
 30) 박찬욱,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초기불교의 실천은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대승불교의 요체인 공성이요, 불성의 실현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공성이나 불성의 현대적 적용은 무한의식의 실현이며, 이기적 내지 소아적 자아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한의 가능성과 교류하는 한마음의 심층의식에 접근해 자재된 내면의 다양한 치유의 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인공 관법’이다. 이러한 것은 필자가 30여 년 동안 병원포교 현장에서 환우를 대상으로 실천한 생생한 기록들로 확인할 수 있다.

논자의 병상포교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병원 사회사업실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하고 주1회 안내 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불자(환우, 환우 가족, 병원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다종교의 활약상이 응축된 병원포교현장은 서로의 이념과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비와 사랑의 생생한 ‘교집합’의 장소였다.

### 3. 주인공에게 맡기다

한마음 일심사상의 실천은 ‘놓고, 맡기고, 지켜봄’과 오공(五共)의 실천에 있다. 주인공에게 맡기는 일은 우주와 직결된 에너지와 같은 용광로에 온갖 고통과 슬픔 등을 넣고 녹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일체를 이루는 일과 같다. 주인공인 ‘참 나’는 상주불멸(常主不滅)의 브라만적 진아(眞我)와 다르며 가아(假我)가 아닌 진여(眞如)이다. 주인공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무한한 포용력과 공덕을 지닌다.

“주인공은 거대한 용광로이다. 이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일체 제불의 보이지 않는 절실한 대원력이 언제나 함께하는 용광로이다. 그러한 용광로가 내 속에 있다. 어떤 쇠든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내리듯 그 어떤 눈물도 자비로 화하고, 그 어떤 아픔도 감사의 염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용광로가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업도, 어떤 환난도 그 앞에서는 한 점 눈송이일 뿐이니 주인공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신묘한 비밀이요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불성

으로서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위덕이다.”<sup>31)</sup>

아무리 올바른 이론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류(교주주의)로 전도될 수 있다. 주인공은 현실이 처해있는 상황, 여러 가지 조건, 연관성에 기초한 관이며, 내면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참구로 숙달된다.

- ‘주인공!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 ‘주인공! 일체현상이 다 당신의 나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 ‘주인공! 당신이 있음을 증명해 지혜물리 터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십시오.’

-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주인공! 당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간절하고 진심어린 깊은 마음에서 솟아난 신뢰와 확신의 정성스런 마음과 지극한 뜻으로 한 생각을 내는 것이다.

내면의 주인공(일심)은 무한의 에너지, 무한의 치유력을 지니고 있지만 쓰고 안 쓰고는 모두의 마음 몫이다.<sup>32)</sup> 따라서 주인공 관법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하다. 즉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봄’에 있다. 지극하고 자연스럽게 내 놓고 지켜보는 관행(觀行)의 실천은 원효의 심생멸문과 유사하다.

“놓는다는 것은 믿음이다. 믿지 않고는 놓아 버릴 수 없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두 주인공이 한다고 몰락 놓아야 하는데 ..... 놓는다는 것은 다만 마음을

31)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6, 358쪽.

32) 『한마음요전』, (재)한마음선원, 2016, 359쪽.

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로써 허물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 놓는다 함은 마음의 용광로에 일체를 넣는 작업인 것이다.…… 놓는다 함은 무엇인가. 첫째, 진실히 자기 자성 주인공을 믿어야 하고 둘째, 물러서지 않아야 하고 셋째, 그대로 믿고 활용하며 믿고 넘어가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다.”<sup>33)</sup>

주인공은 마치 업의 용광로와 같아서 ‘농고’ 몽땅 ‘맡기어’ 지켜보면 치유가 일어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상을 버려야한다. 주인공 ‘참 나’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사랑식(제7 말나식)의 아만·아치·아견·아애를 경계한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려거든 먼저 아만·아집·아상을 여의라. 빈 그릇이 되어라. 빈 그릇에 새것이 담긴다. 무언가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새 것을 담을 수 없다.”<sup>34)</sup>

주인공은 진실한 자기의 실상, 생명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실상은 실체의 아(我)가 아니라 공의 실체인 아공(我空)를 말한다. 공성의 치유력은 보살의 실천과 다름 아니다. 어떤 스승은 다만 제법을 공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알고 병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적연(寂然, 고요하고 평온하게)히 머물러 있기만 하여도 낫는 일이 많다고 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억념이 사대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므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일이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여 화열(和悅, 조화로 기뻐함)되게 하면 여러 병이 곧 낫는다고 말하고 있다.<sup>35)</sup>

#### IV. 두 사상의 동이점(同異點)

이상에서 원효와 대행의 일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혜선 스님은 대행선의 사상적 근원을 『대승기신론』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일심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공존으로 여래장이라 하는 것과 같은

33) 『한마음요진』, (재)한마음선원, 2016, 538~539쪽.

34) 『한마음요진』, (재)한마음선원, 2016, 577쪽.

35) 『修習止觀坐禪法要』(T46, 471c). “有師言 但知諸法空無所有, 不取病相, 寂然止住, 多有所治. 所以者何? 由心憶想鼓作四大, 故有病生. 息心和悅, 眾病即差”

뜻이며, 『기신론』의 본각의 입장이다. 또한 한마음으로부터 나타난 제불과 중생의 자비와 사랑이 다르지 않음은 그대로 동체대비와 유사하다.”<sup>36)</sup>고 하거나 직접 “『기신론』에서 일심의 작용과 일치하는 것이다.”<sup>37)</sup>라 분석하고 있다. 일심의 바탕 위에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원효스님의 일심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포괄자의 개념처럼 느껴진다고 본다면, 실천적 측면에서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중생교화이고 불법을 흥포하는 것이라 보는 점에서 원효의 입장이 분명해진다. 그런데 원효는 중생교화나 불법의 흥포를 지관의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와 관은 선정과 지혜에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각 정혜에 두루 통한다고 보았으며, 그런 만큼 이문(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서로 뺄 수 없듯이 지관도 함께 닦아야만 한다고 보았다.

대행스님은 일심을 주인공이나 참 자유인으로 인식하면서 가아에 대치하는 무한한 대아(大我)로 인식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지관을 통해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 심리적 상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기신론』의 본래 입장이라면, 원효는 지관의 수행을 통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원효는 일심의 선(禪)실천을 지관에서 찾았다.

『기신론』에 토대를 둔 실천적·초월적 진리 체험 이론을 『금강삼매경론』에 담아서 선교일치의 교설을 펼쳤다는 점에서 원효는 독창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sup>38)</sup> 그런데 대행스님은 지관이란 전통적인 수행방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냥 ‘믿고, 놓고, 맡기고, 지켜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무명심이 생멸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36) 혜선, 『한마음과 대행선』, 운주사, 2013, 196쪽.

37) 혜선, 앞의책, 198쪽.

38) 조용길, 『명저탐방/원효, 『금강삼매경론 상·하』,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황은 화쟁(和靜)으로 치유 - 한마음의 근원은 삼공지해(三空之海)의 바다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4, 259~260쪽.

그것은 바로 오공의식이라는 대행스님만의 독특한 실천법이다.

『기신론』에 의거하면 인간은 근본무명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생멸하는 일체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은 무명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너무 어렵고 관념적이다. 마음을 멈추거나 초탈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점에서 대중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원효는 귀명(歸命)이란 개념을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도 쉽지 않다. 지관을 통해 현실의 한계는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일심은 언어도단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적 체험이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대행스님도 그런 점을 통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민한 것은 대중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가르침을 통해 현실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현실을 버리지 않고, 대긍정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중생의 현실이고, 여래장이다. 그렇지만 그 여래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계를 인정하는 한 중생의 삶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찌할 것인가? 현실을 긍정하면서 현실의 한계라는 껍질을 벗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행스님의 오공의식은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관념에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심성을 배양해 일심의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었다.

<원효와 대행의 일심사상 비교>

구분	원효의 일심	한마음 일심
인식	- 三空: 我空·法空·俱空 - 포괄자(초월자) - 歸命: 하화중생(下化衆生) 상홍불도(上弘佛道)	- 주인공 : 우주전체 생명의 근본마음, 인간의 근본마음 - 진여(眞如, tathata), 공성(空性), 불성(佛性) - ‘참 자유인(大覺者)’
존재	- 심생멸문(心生滅門), - 여래장(심진여문)	- 참 나(‘참된 나’) : 소아(가아)에 대치 무한한 존재양식 무한대아
실천	- 歸一心源 - 止觀一如	- 믿고, 놓고, 맡김, 지켜봄 - 오공 :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

이론이 실천의 뼈대이며, 실천은 이론을 증명한다고 할 때 존재양식과 인식체계를 구축하는 일심, 이문, 삼대라는 『기신론』의 사상과 지관의 실천은 원효와 대행에게 이어지면서 시대상에 맞도록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차이점을 보여준다.

첫째,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범부가 부처로 탈바꿈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원효의 일심은 본래 하나여서 생사와 열반을 초월하는 본래일심이며, 대행의 일심은 주인공, ‘참 자유인(大覺者)’이 지닌 무애 자재한 가능성의 근원이다.

둘째, 이문의 실천은 원효와 대행의 차이점이다. 실천은 이론을 증명하며,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심진여는 일심의 근원, 심생멸은 실존적 존재양상이라고 할 때 『기신론』에서 선악과 생멸이 하나임을 깨달아 궁극적인 실존으로서 진여에 도달하기 위한 심생멸문(心生滅門)에 대해 원효는 여래장이라고 했다.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이 숨어 있어서 나타지지 않는 여래장(심지여문)은 지관

일여(止觀一如)로 드러난다. 대행은 무한한 존재양식으로서 참 나, 주인공을 나타내며 즉각적인 실천을 강조한다.

셋째, 『기신론』의 체·상·용 삼대를 통섭하는 원효는 지관의 수행을 통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며(歸一心源 止觀一如) 마음의 본성을 바다에 비유한다. 대행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별과 집착 역시 한마음(일심) 주인공의 작용으로써 ‘용광로’에 ‘믿고 맡기어’ 놓고·맡기고·지켜보는 간절하고 진실한 알아차림을 강조한다.

## V. 나가며

원효와 대행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점을 전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느 사상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효의 사상적 지향점과 대행의 실천 사상적 면모를 비교하면 상대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감히 평면적 비교라는 방법을 활용했다. 시공을 달리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성이 사상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상적 특징이 지니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원효의 일심이 회통적이고 포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대행스님은 회통과 포용이란 토대 위에 중생을 섭수해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천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심은 평등의 원리이다. 일심을 토대로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은 체용론을 일심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중국 남북조의 지식인들은 체용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부단한 논쟁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체용론은 동전의 양면이나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라 본다. 그런 점에서 일심은 양자의 기능을 동시에 긍정하면서 포용한다.

다만 일심에 관한 사상가들의 입장은 동일하지 않다. 일심의 본질에 천착하는 사상가가 있는가 하면, 진여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사상가도 있다. 이들은 남북조시대에 활동했던 귀무론자들과 같은 성향 속에서 불교가 관념적인 색채를 띠게 만들었다. 원효는 양자를 화해하여 동시에 중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인 지관의 수행에서 찾고자 했다. 그리고 무애가를 부르면서 천존만락을 주유하는 하화중생의 자비행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행은 전통적인 일심이문의 영향 속에서 현실을 보다 중시한 것으로 본다. 본질의 세계인 진여문도 중요하지만 중생들의 실존적 현실세계의 실천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기적 실존의 세계를 인식하고, 진여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다섯 가지의 함께 한다(五共)는 생각을 지녀야만 한다고 보았다. 생명의 세계에서 다섯 가지의 함께 하는 실천을 심화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지관사상을 현대화, 대중화 시킨 ‘농고, 맡기고, 지켜봄’이라는 수행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관념적이기 보다는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생의 본성은 부처나 여래의 본성과 같이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不相離性)인 일심에 대한 불각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기신론』의 일심은 선악과 생멸이 원래 둘이 아닌 일심의 작용으로 본다. 분별과 집착 역시 한마음의 작용이다. 일심인 진여를 깨달아 궁극적인 실존에 도달할 수 있다. 진여와 무명심이 둘이 아니며, 무명의 마음을 멈추는 곳에서 일심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원효와 대행은 생각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돌아가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그것은 시대와 공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효는 마명의 『기신론』의 기획과 구도를 계승해서 번뇌가 보리이고, 세속이 바로 열반이며, 진제와 속제의 구분과 흔적마저 없애버리는 회통의 일심사상은 사상적 기틀을 마련한다. 대행선사의 한마음은 하나이며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이다. 즉 한마음은 일심, 진여, 공

성, 주인공 ‘참 나’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한마음의 경지는 우리의 사유와 언표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진여라고 부르고 마음의 진실한 지평을 보여주기에 한정적인 언어의 세계에 갇힐 수가 없다. 언어적 표현을 넘어 사고의 본질은 상통점이 있는 것이다.

---

☯ 논문접수일: 2018.2.27 / 심사개시일: 2018.2.28 / 게재확정일: 2018.3.12

### <참고문헌>

\* 대정신수대장경 : T 약호를 사용함.

- 馬鳴菩薩造·眞諦譯, 『大乘起信論』 (T32), 『금강삼매경론』 (T34), 『대승기신론소』 (T44), 『佛說阿彌陀經疏』 (T37), 『修習止觀坐禪法要』 (T46), 『섭대승론석』 .
- (재)한마음선원, 『한마음요전』, 2016.
- 고영섭, 「분황 원효의 평화 인식-일심과 화쟁과 무애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62, 한국불교학회, 2012.
- 권오민, 「상좌(上座) 슈리라타의 "일심(一心)"과 알라야식(識)」, 『한국불교학』 70, 한국불교학회, 2014.
- 김도공, 「원효 일심사상의 체계화 과정 고찰」, 『원불교학』,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1999.
- 김원명, 「대행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중심으로 본 업과 삶」,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2013.
- 남동신, 「원효의 기신론관과 일심사상」, 『불교사상사학』, 2003.
- 박찬욱,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초기불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수미, 「동아시아의 대승기신론 해석의 전개」, 『불교학연구』, 2016.
- 이평래, 『대승기신론 강설』, 민족사, 2014.
- 이호근, 「범아일여사상과 연기설」, 『인도철학』, 인도철학회, 2010.
- 전재성 역주, 『맛지마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9.
- 조용길, 「명저탐방/원효, 『금강삼매경론 상·하』 현대인들의 정신적 방향은 화쟁으로 치유 - 한마음의 근원은 삼공지해(三空之海)의 바다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2004.
- 차차석, 「대행선이란 무엇인가? - 제1회 학술대회」, 대행선연구원, 2017.
-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33, 2011.
- 한자경,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선학』, 한국선학회, 2016.
- 혜선, 『한마음과 대행선』, 운주사, 2013.

## Abstract

### *Consideration of comparison between Daehaeng's Hanmaum and Wonhyo's Ilsim / Kim, Soon-Won*

This writing considers the modern variation of the thought of One mind(eka-citta, 一心), its essence and its modern significance by comparing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Wonhyo's Ilsim(一心), particularly that in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大乘起信論) and Daehang's Hanmaum.

The theory and the practical approach of the thought of One mind was developed by Wonhyo in Korean Buddhism via Indian and Chinese Buddhism. He preached the realization of One mind which represents as it is and unifies defilement(kleśa, 煩惱) and enlightenment(Bodhi, 菩提) into one, free from division and conflict.

One mind is not that essence(體) and phenomenon(相), essence(體) and operation(用), and true-suchness(眞如, tathātā) and arising and ceasing(生滅) are divided but that they are unified into one. It is the mind that becomes one with the unlimited univers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is is crystallized into Ven. Daehaeng's(大行, 1927~2012) thought of Hanmaum(主人空, the sūnyatā of self). 'Han' means that everything unites into one, vast and boundless. Hanmaum means that fundamental mind, intangible, invisible and timeless. connects with the tree-thousand-great-galaxies of worlds, which turns into one.

【Key words】 the thought of One mind, Hanmaum vipaśyanā(Vipassanā), mediation, Wonhyo, Daehaeng, Juingong(the sūnyatā of self).